## 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25일 화요일 음 4월 14일 (6물)

기상정보

| 오 전 | 강 수 확 률 | 오 후 |
|---|---|---|
| 20% | 제 주 | 20% |
| 20% | 성 산 | 20% |
| 20% | 고 산 | 20% |
| 20% | 서귀포 | 20% |

### 구름 많음

제주는 대체로 구름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18℃, 낮 최고기온은 22~26℃로 전망된다. 복사냉각에 의해 기온이 떨어져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 | | |
|---|---|---|
| | 해뜸 05:28 / 해짐 19:34 | 달뜸 18:13 / 달짐 04:24 |
| 물때 | 만조 09:22 / 22:15 | 간조 03:52 / 15:59 |

식중독지수: 관심

자외선지수: 매우 높음

미세먼지 (PM10)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 나쁨 |
|---|---|---|---|

초미세먼지 (PM2.5)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 나쁨 |
|---|---|---|---|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 | | |
|---|---|---|
| 내일 | 흐리고 비 | 17/25℃ |
| 모레 | 흐리고 비 | 17/23℃ |

## 월드뉴스

# 양모 생산국 뉴질랜드 '양털 배' 첫선

### 가격 저렴·환경 친화적

양모와 PLA로 만든 보트.

세계 주요 양모 생산국 가운데 하나인 뉴질랜드에서 양모를 재료로 개발해 배를 만들었다.

양모로 배를 만든 건 세계 최초다.

뉴질랜드 텔레비전(TVNZ)방송 1뉴스는 뉴질랜드의 사업가이자 발명가인 로건 윌리엄스(25)가 거친 양모와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폴리 락트산(PLA)으로 생분해성 재료 '케라보스'를 개발해 보트를 만들었다며 23일 크라이스트처치 리틀턴 항에서 처음으로 보트 시승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윌리엄스가 개발한 케라보스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재료로 공장에서 조그만 알맹이 형태로 생산한 뒤 사출 금형에 넣어 컵과 접시, 화분 등 각종 용기를 만드는 데도 사용된다.

윌리엄스는 이번에 만든 배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면 플라스틱이 40kg 정도 들어갔을 것이라며 "비닐봉지로 치면 7000장 정도 되는 양"이라고 말했다.

그는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지속 가능성과 성능 면에서 큰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강하고 가볍고 단단하면서 환경에도 좋다"고 강조했다. 또한 윌리엄스는 PLA와 양모를 혼합해 사용하면 거친 양모가 싸기 때문에 가격도 PLA만 사용할 때보다 더 싸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시어 엣지'라는 회사를 만들어 양모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혁명적으로 바꾸어놓을 천연 재료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조 상 윤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한라칼럼

# 법과 원칙의 이면

문 만 석
(사)미래발전전략연구원장·법학박사·독자위원

법이 흔한 세상이다.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며 법과 원칙 또는 헌법과 법률이 등장하고, 무너진 법치를 바로세우겠다며 고소·고발이 난무한다. 법은 일견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고,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법치의 시대를 살고 있고, 무너진 법치는 형용모순이 된다.

새삼 법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법은 국가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최소한의 규율이며, 평온한 삶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이다. 최상위 법인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 구조를 형성하고, 형법이 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그리고 민법이 사인간의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등 각각의 법은 규율 대상을 달리하며 제정 취지와 목적에 따라 본연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런데 법전에는 세상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담겨 있을까? 같은 조항의 해석을 두고도 견해가 다르고, 같은 사건의 판단에도 심급에 따라 판결이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 3심제는 판사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이고, 이는 사법부와 판사의 불완전성을 은연중에 인정하는 제도가 된다. 결국 법도 법조인도 완전하지 않다.

우리는 지금 법 우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법치가 법에 의한 자의적인 국가권력의 통제이고 인치의 상대개념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법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는 듯하다. 법이 최상위의 가치가 되고, 하물며 공무원 징계 등 행정행위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의 결정에 온전히 의존하고 있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이는 만인에 대해 편견 없이 공정하게 죄에 맞는 처벌이 가해지는 것이 정의이자 법임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 앞의 정의의 여신은 눈도 가리지 않고 한 손에 저울을 높이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무거운 법전을 들고 있다. 눈을 가리지 않았으니 그 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무전 유죄, 무전 유죄'가 횡행하고, 법전에 얽매여 절차적 정의만 부르짖으며, 저울을 높이 들어 그들만의 형평을 강조해온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법과 원칙이 살아 있는 세상은 갈등과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일까. 그 법과 원칙이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법과 원칙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법체계가 달라서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미국법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엄격하다. 분식회계 등 경제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더 중하고, 사회에서 혜택을 받은 계층은 더욱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 우리의 법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지, 생활범죄에 엄격하고 화이트칼라 범죄에 눈 감고 있지는 않은지, 달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을 처벌하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성찰해보아야 한다. 미국의 어느 판사는 굶주림에 식품을 훔친 할머니의 재판에서 그런 상황으로 내몬 자신과 사회의 책임을 거론하며, 자신과 방청객에게 거둔 벌금을 모아 할머니에게 건넸다. 법이 법전에만 갇혀 있는 한, 그 법은 사람과 세상으로 열려 있을 수 없다. 법과 원칙이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만인에게로 향하는 통로이길 바란다. 그래서 법치가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법을 통한 치유이기를, 우리가 갈등과 비난에서 벗어나 서로를 배려할 수 있기를…

## 열린마당

# 우리집 백신 주택용 소방시설과 함께

문 창 운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장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주택화재는 전국에서 3만여건으로 전체 화재 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인명피해로는 전체 사망자 중 55%가 주택화재로 인해 사망했다.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초기 진압 및 인명대피인데, 화재 초기에는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백신과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이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해야 하고, 소화기는 각 층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것 외에 바닥 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돼 있다면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2012년 2월 모든 일반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이 제정됐다.

아직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세대 중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에서 무상으로 보급을 추진 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구입 방법은 인터넷,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쉽고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나사 2개를 천장에 고정해 설치할 수 있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씩 출입구 등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는 것이 좋다.

관리 방법으로는 정기적인 확인 및 점검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면서 점검해야 한다. 소화기 점검 방법으로 소화기 상단에 보이는 압력 게이지가 정상범위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월 1회 정도 소화기를 흔들어 분말 상태를 점검하면 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점검 버튼을 눌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소중한 우리 몸이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예방주사인 백신을 맞듯 우리 가족이 지내는 곳을 화재로부터 예방을 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과 실천이 필요할 때다.

# 제주 농업인 위한 농지은행·농지연금

서 상 기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코로나 19 장기화로 우리 농업·농촌은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농촌의 구조 개선과 더불어 농업인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농지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나 재배작물의 가격폭락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서 매입하고 부채를 상환하도록 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는 지원받은 농가가 매입액의 1% 이내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장기임대 형식으로 농업 경영을 계속 영위할 수 있으며, 환매권을 보장해 임대기간 내에 언제든지 환매 신청이 가능하며, 환매시 환매대금의 30%를 납부하고 70%는 3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 농가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

또한, 1996년 이후 매매 또는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농지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1000㎡ 미만 농지를 제외하고 직접자경이 곤란한 농지 소유자에게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소유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농지은행에서는 '농지연금제도'를 2011년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받는 제도이다. 농지소유자가 만 65세이상 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영농 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 없이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이 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신청 가능한 농지는 공부 상 지목이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소득 감소로 금년에는 경영위기에 처하는 농가가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이 코로나 19 위기의 농업인에게 희망의 백신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윈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 (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다)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 귀 종 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어짐.

| | | | |
|---|---|---|---|
| ·카라향 | 1, 4년생 | ·고림조생 | 3년생 |
| ·유라조생 | 1년생 | ·하례조생 | 2,3년생 |
| ·레드향(무독) | 1,2,3년생 | ·한라봉 | 5,6년생 |
| ·천혜향(무독) | 2,3,4년생 | ·하귤 | 2,3,7,8년생 |
| ·궁천 | 1,2,3,5년생 | -그외 다수품종 | |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히트예감 • 윈터프린스 - 연내수확이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21년 11월 / 22년 3월(분양예약)
- 가온시 10월~11월 수확가능
황금향대조품종(껍질이 쉽게 벗겨진다.)
- (FTA)기금 우량 품종 갱신사업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보조품종
히트예감 •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대조품종 - 제라몬(레몬), 탐나는봉(한라봉), 사라향(천혜향)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산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놀,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몬 국내산 탱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 주간 농업농촌소식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 방제정보를 안내합니다**

□ 옥수수
○ 병해충 방제 : 멸강나방, 열대거세미나방, 조명나방 등
- 주로 밤에 활동하므로 이른 새벽에 예찰 및 약제 살포가 효과적임
○ 적기 수확
- 암이삭 발생 20일 후 이삭 껍질을 벗겨 성숙 정도 확인 후 수확
- 한낮에 수확하면 이삭 내 온도가 높아 저장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지므로 이른 아침 온도가 낮을 때 실시
- 이삭 끝 수염이 떨어져 없는 것은 나방 피해일 수 있으므로 폐기

□ 단호박
○ 착과기 관리 : 1~2번화 착화 및 착과 관리(약제 살포 지양 등)
○ 줄기유인 : 아들줄기 2~3본 유인 권장(착과 균일, 수확작업 편리)

□ 고구마
○ 밑거름 주기(kg/10a) : 퇴비 1,000, 요소 12, 용과린 32, 염화칼리 35
○ 이랑만들기 : 너비 70~75cm, 포기사이 30cm
○ 삽식시기 : 적기재배(5월 중순), 만기재배(6월 중순)
○ 삽식요령 : 묘를 3~5일 음지에 보관 후 삽식. 4~6마디에서 덩이뿌리가 발생하는 뿌리가 발생하므로 이 부분이 묻히도록 사선으로 식재

□ 구쪽파
○ 적기 수확 : 잎이 70~80% 도복 될 때 뽑아 3~5일 말린 후 수확
○ 종구로 사용할 것은 저장기간 무게 감소가 크므로 수확 후 충분한 건조시간 필요
- 온도별 감모율 : 25℃에서 24%, 30℃에서 38%, 40℃에서 53% 감소함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53)